

Commentary

Date 2025.12.01

Analyst 이지선

이 주의 투자 포인트 (12월 1일 주)

지난 주 후반 VIX (변동성 지수)가 급락하며 안도 심리가 확산되고, 나스닥 100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등 기술주 반등 및 랠리 재점화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FOMC 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이번 주는 소비 지표 및 물가 확인이 여전히 핵심일 전망입니다.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, 미국시간 금요일 PCE 발표라는 '빅 이벤트' 전까지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확대보다는 기존 보유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주간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.

1. 12월 FOMC 전 마지막 변수는 Core PCE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발표 스케줄이 재조정되었던 9월 Core CPE (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)가 미국 시간 이번 주 금요일 (한국시간 6일 00시) 발표 예정입니다.
- 시장 기대치는 전년동기 대비 (YoY) 2.9% 상승입니다.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이번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시장 기대치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이며,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와 2026년 통화 완화 사이클을 고려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성장주, 기술주(테크)에 유리합니다.
- 다만,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주식 시장 하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

2. 기록적인 온라인 매출을 나타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2025년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약 118억달러 수준으로, 작년 대비 약 +9.1%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
- 다만 총 매출은 늘었지만, 구매 건수는 감소하여 소비가 크게 살아난 것이라기 보다는,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품목을 할인 기간을 통해 선택적으로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- AI 추천 서비스와 챗봇 활용 증가가 온라인/모바일 쇼핑을 더욱 부스팅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.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인 쇼핑 열기가 다소 약한 것은 일부 소비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(관세, 노동시장 약세) 과소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.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온라인 중심, 필요에 따른 선택적 구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할인/가성비 기반 소비주에는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체, 온라인 매출 비중이 낮은 업체는 연말 소비 특수로 인한 실적 개선이 어려울 개연성이 있습니다.

Compliance Note
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